

나가사키 평화 선언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하는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가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은 1956년. 이곳에 15만 명의 사상자를 낸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1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원폭 피해자인 와타나베 지에코 씨가 대회장에 들어서자, 사진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트렸습니다. 학도로 동원된 공장에서 열여섯 살 때 피폭되고 무너져 내린 철골 밑에 깔리어 하반신이 마비된 와타나베 씨가 어머니 품에 안겨 대회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진은 찍지 마라!", "구경거리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뒤, 연단에 오른 와타나베 씨는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부디 제 사진을 찍어 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 주세요."

핵보유국 정상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영혼의 외침이 들리시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온 힘을 다하여 호소하는 외침 말입니다.

올해 1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핵 보유 5개국의 정상은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며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 '이곳에 실재하는 위기'임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핵무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인류는 인간의 오판 및 기계 오작동, 테러 등으로 핵무기가 사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언제나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핵무기로 나라를 지키자는 생각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나라가 늘면서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만 하고 쓰지 않으리라는 것은 환상이자 기대일 뿐입니다. 존재하는 한 사용되며,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길임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올해는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두 차례 중요한 회의가 잇따릅니다.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무기 금지 조약 제 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을 반대하는 비당사국과 함께 솔직하고 냉정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선언문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금지 조약과 핵확산 금지 조약(NPT)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임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뉴욕 본부에서는 지금 핵확산 금지 조약의 재검토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지난 50 여 년 동안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핵 군축을 추진하는 조약으로서 큰 기대와 역할을 짊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조약과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아,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은 이 조약에 따라 특별한 책임을 집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대립을 극복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한 약속을 거듭 확인하여 구체적인 핵 군축 프로세스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에 호소합니다.

‘전쟁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국제 사회에서 평시에도 평화 외교를 펼치는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비핵 삼원칙을 가진 나라로서 ‘핵 공유’처럼 핵에 더욱 기대는 것이 아닌 ‘동북아 비핵 지대 구상’과 같이 핵에 기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앞장서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유일하게 전쟁에서 원폭의 피해를 받은 나라로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전 세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에서 전쟁의 현실을 접합니다. 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일상과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사용된 것도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시민 사회에 사는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전쟁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민 사회는 전쟁의 온상이 될 수도, 평화의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감을 퍼트리고 두려움을 부추겨 폭력으로 해결하는 ‘전쟁의 문화’가 아니라, 신뢰를 확산시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내는 ‘평화의 문화’를 시민 사회 속에 꾸준히 뿌리내려 갑시다. 고등학생 평화 대사들의 “미력하지만 무력하지 않다”라는 표어를 평화를 바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어로 만들어 나갑시다.

나가사키는 젊은 세대와도 힘을 합치어 ‘평화의 문화’를 키우는 데에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원폭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84 세를 넘겼습니다. 그들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고, 피폭 경험자를 서둘러 구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원자 폭탄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나가사키는 히로시마, 오키나와,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피해를 본 후쿠시마와 연계하여 평화를 이루는 힘이 되고자 하는 세계인과의 연대를 넓히며,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핵무기 폐기와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쓸 것을 이곳에서 선언합니다.

2022 년 8 월 9 일

나가사키 시장 다우에 도미히사(田上 富久)